



선보Family 박두선 부회장 취임

“변화와 위기 함께 돌파하며 선도기업으로서 새로운 기회 선점해야”

12월 4일 박두선 부회장이 취임하며 선보Family는 새 가족을 맞이했다.

이날 오전 본사 교육장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선보공업·선보유니텍·선보피스 임직원 85명이 참석해 박두선 부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선보Family 최금식 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축사를 건넸고, 박 부회장은 선보Family로 함께하게 된 소감과 포부를 담은 취임사로 화답했다. 임직원들은 신입 부회장에게 명함과 배지, 만년필과 꽃다발을 전달하고 케이크와 샴페인을 나누며 소통 시간을 가졌다.

박 부회장은 취임사에서 “막중하면서도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신 선보Family께 감사드립니다”며 “선보’라는 이름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며 자라고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일하며 선박 건조에 종사해 왔던 제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제게 중책을 맡기신 것은 우리 회사가 보다 나은 인화(人和)를 바탕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우리는 신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해사기구의 신조선과 기존 선 대상 환경 규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제도 정비 현황 등을 살펴봤을 때, 선박을 넘어 모든 산업과 제품이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명제의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변화와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열과 성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회사가 선도기업으로서 새로운 분야의 기회를 선점하고, 지속가능 경영과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박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냉철한 현실 분석과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며, 선보Family의 장점을 발굴하고 함께 소통하며 열정과 헌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랜 기간 조선업에 종사한 박 부회장은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대표이사 등 임원직을 두루 역임하며 경영 실적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회사 소식

배우자 초청 '임원 워크숍' 성료

12월 8일 서구 송도 원덤그랜드부산 호텔에서 임원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임원 24명과 배우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및 특강, 레크리에이션, 축하 공연, 네트워킹 타임 등으로 구성됐다. 오전에 '원가경쟁력 절대 우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조별 발표와 함께 경영기획(최경호 상무), 영업·플랜트설계(김병열 전무), 생산(이동준 상무), 조선설계(인진태 전무), 연구·신사업(장호길 상무) 등 부문별 토론회가 진행됐다.

점심 식사 후에는 '존경받는 임원을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박지영 강사)에 이어 선보Family 최광식 회장이 참여한 'CEO와의 대화', '부부를 향한 인문학(홍순철 강

사)' 강연이 진행됐다. 저녁 식사 후 열린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 다양한 행사 상품이 준비됐고, 배우자들을 위한 기념선물도 별도 지급됐다. 이날 축하 공연을 위해 초청받은 선보유니텍 부설연구소 권수인 전무의 가족은 선보Family를 위한 현악기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다음 날인 9일에는 해운대비치CC에서 임원 친선 골프대회도 개최됐다. 임원들은 2조로 나뉘어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골프 경기를 즐긴 후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이틀에 걸친 워크숍과 친선 경기 일정을 통해 임원들은 부서별 운영 현황과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교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회 공헌

'희망 나누는 따스한 연말' 선보 이웃돕기 성금 물결

연말을 맞아 선보의 지역사회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선보공업은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한 치아 건강 지원사업인 '지역과 함께 찾은 미소'에 참여,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물론대종합사회복지관에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치아 건강이 취약한 다대1동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해 치과 치료와 틀니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사랑의 열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다. 선보는 모금회에 매년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며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과 행복 실현의 경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선보유니텍 구평공장은 김장 나눔 등 후원을 위해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으며, 선보유니텍 대불공장과 선보하이텍은 삼호읍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500만 원씩을 기부했다. 선보피스도 진례면 행정복지센터에 5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에는 ▲서재욱 부사장(선보공업 경영지원 담당) ▲이동준 상무(선보유니텍 구평공장 생산 담당) ▲최경식 상무(선보유니텍 대불공장 총무안전 담당) ▲이규현 전무(선보하이텍 영암공장 생산 담당) ▲최홍렬 선보피스 대표이사 등 선보Family 임원진이 참여했다.

회사 소식

비전 공유·친목 도모 '신규입사자 워크숍' 개최



선보는 11월 17일 오전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2023 신규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1년 이내 입사자(2022년 10월 이후 입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선보의 비전과 경영 목표 및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과정은 최경호 상무가 맡아 진행한 'Let's Go 2025 비전 공유'를 비롯해 '세계 환경 규제 및 해외마케팅 전략(이지영 상무)', '선보 연료 공급시스템(박종현 상무)',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장호길 상무)' 등을 주제로 한 임원진 강의로 구성됐다.

점심 식사 후 오후 과정에는 선보Family 최금식 회장과 선보공업 김상도 대표가 참여한 'CEO와의 대화'에 이어 '선보의 성장스토리'와 조직문화(서재욱 부사장), '슬기로운 조직생활을 위한 직장인의 매너'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마련됐다. 이어 사가 교육 및 제창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과정이 마무리됐고, 저녁 식사 후 열린 레크리에이션에서는 부서별 개성을 살린 합동 공연이 마련되며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더했다. 가습기, 손난로, 보조배터리, 양말, 상품권 등 다양한 행사 상품도 지급됐다.

신규입사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신사업 및 성과 창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소통·협력 등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사회 공헌

최금식 회장 “사랑의 온도탑 펄펄 끓도록 많은 참여 당부”



선보Family 최금식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2월 1일 송산현 광장에서 '희망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부산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108억 6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 이번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지역 기업 성금 전달식과 부산은행 '손에 잡히는 기부 플랫폼' 소개,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 등을 함께했다.

출범식과 함께 운영이 시작된 '사랑의 온도탑'은 겨울철 소외된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대하자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로, 목표 금액의 1%인 1억 860만 원이 모일 때

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한다. 108억 6천만 원이 모여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면 경제 위기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부산은 모금 목표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많은 나눔의 손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보Family 최금식 회장은 "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선보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새해를 맞아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개인 기부도 늘어나며 최근 3년간 100도를 초과해, '따뜻한 부산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

회사 소식

선보Family, 제25회 부산 마라톤대회 참가



선보Family 임직원 가족 70여 명은 11월 19일 다대포 일원에서 개최된 제25회 부산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비대면 개최를 제외하면 2005년부터 약 20년간 부산마라톤대회에 한 해도 빠짐없이 참가해 온 선보Family는 올해도 많은 인원이 참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했다. 선보Family는 오전 8시 대회장에 집결해 축하공연을 감상하고 안전 교육을 수강했다. 이후 9시부터 5분 간격으로 하프코스, 10km, 5km 부문 참가자들이 차례대로 출발했다.

이날 대회 참가비는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50% 지원됐으며,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편육, 어묵탕, 김치전, 과자, 음료 등 다양한 음식도 준비됐다. 장철민 책임(기획팀)과 김민진 선임(EM팀), 이상민 선임(설계팀)은 각각 10km, 5km 여자부, 5km 남자부에서 선보Family 참가자 중 1등 기록을 세우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사회 공헌 '이웃에 사랑의 온기를' 선보Family, 연탄 봉사로 나눔 실천

12월 2일 선보Family는 감천동 2지역 일대에서 연탄 봉사나눔 활동을 펼쳤다. 오전 일찍 모인 선보Family는 장갑 등 복장을 착용하고 연탄 1만 장 기증 및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부산연탄은행 관계자의 지도하에 4개 조로 나누어 일부 수량을 28가구에 1~200장씩 배달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나눔 활동은 오전 10시 30분경 마무리됐다. 선보Family는 어린 자녀들과 연탄을 싣고 옮기고 쌓으며 추운 겨울 이웃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의 의미를 함께 새겼다. 참여자들에게는 생수와 간식, 영양제 등이 지급됐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방비용이 급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원자재값과 배달비용 등이 고공 행진하며 서민 삶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연탄 한 장당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1,200원까지 치솟고, 기부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선보Family는 어려운 시기 고통을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 소식

선보엔젤파트너스,
부산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선보엔젤파트너스가 11월 9일 부산 해운대 센텀스카이비즈 빌딩에서 'Roundtable in Busan : AI&EY 특집'을 개최했다.

오후 3시부터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가 투자 기업의 IR(홍보)을 경험한 후 글로벌 회계법인인 'EY한영' 초청 특강을 수강했다. IR 시간에는 전도유망한 부산 기술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발표가 진행되며 눈길을 끌었다. '췌테렌즈'는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병과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AI 기술을 선보였으며, '네이션에이'는 Generative AI(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3D 콘텐츠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뉴로이드'의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EY한영산업연구원 변준영 원장과 김상진 상무는 '경제 전망 및 지정학적 시나리오'와 'Generative AI의 이해 및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회사 소식

부산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지원

선보는 11월 24일 부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3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설명회'에 참가해 구인 활동을 전개했다.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선보는 부산·경남 소재 우수 중소기업 자격으로 참가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상담을 진행했다. 우수 중소기업 채용관 부스 운영을 비롯해 취업 정보 안내, 인사담당자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인재 발굴에 나섰다. 이 밖에도 입사지원서 컨설팅, 퍼스널 컬러 진단, 스트레스 점검, 비자 제도 상담, 인생네컷 사진 촬영 등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조선·기자재 분야에서 현장 인력난이 심화한 가운데 유능한 해외 인재들이 선보공업 등 우수 지역 기업과 연계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

몽골 철도청 노동안전보건사무국,
선보공업 본사 방문

몽골 철도청 노동안전보건사무국이 12월 11일 오후 선보공업 본사에 방문해 선보의 안전관리 운영현황을 시찰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몽골 보건의료 산업 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보는 본사를 방문한 사무국 관계자들을 맞아 회사 운영 상황을 소개하고 안전활동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대1공장에서 다대2공장으로 이동해 생산현장과 근무환경을 함께 둘러본 후 협력 사항 등을 공유하고 안전 시스템 벤치마킹 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문 일정에는 H.S.E.팀 임영삼 상무와 배상준 선임, 총무팀 김정석 책임과 황진수 선임이 동행했다.

교육

'세금 폭탄 피하는
연말정산 상식' 아침특강 개최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이 12월 6일과 13일 교육장 및 사내식당에서 올해 마지막 아침특강을 개최했다.

'모르면 세금 폭탄, 연말정산 상식'을 주제로 진행된 12월 아침특강은 이동훈 국제재무설계사가 맡았다. 이번 특강에서는 직장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들을 상세히 소개해 선보Family의 호응을 얻었다. 이동훈 강사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부터 저축공제 상품의 종류와 기준 등을 설명하며 각자 상황에 맞는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했다. 또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강조하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연말정산 팁을 전했다.

사회 공헌

'물건 사고 기부까지' 일석이조, 연말 맞이 선보 스페셜 당근마켓 개장



선보Family 나눔 활동인 당근마켓 '아름다운 기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스페셜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앞서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 생산관리팀은 사내 당근마켓에 애장품을 기부했다. 기부 물품으로는 양주와 와인, 텀블러, 피규어 등 기호품부터 방석과 열쇠고리, 색연필, 건강용품, 헤어드라이어, 핸드크림 등 다양한 생필품이 접수됐다.

선보 당근마켓은 온라인 댓글 접수를 통해 기간 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참여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판매 수익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선보Family 최금식 회장은 캠페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장난감과 문구류, 교육용품 등을 직접 후원하며 연말 나눔에 동참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된 물품들은 12월 15일 각 참여자에게 일괄 전달됐다.

선보Family

우리 동호회가 궁금해? - 영암 스크린골프 동호회

필드 라운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편리함과 친환경성까지 모두 갖춘 스크린골프는 현실감 넘치는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사랑받고 있다. 장소 예약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선보하이텍 영암공장 동호회 종목으로도 선택되며 어느새 임직원들의 단골 취미로 자리 잡았다.

영암 스크린골프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호회는 2019년 1월 15일에 창단돼 현재 지역 회원과 사내 협력사 회원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공통 취미를 통해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교류함으로써 보다 나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의 특징이나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스크린골프 활동 외에도 연간 2회 정도의 필드 모임과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회원들께 보다 다양한 활동과 선물 증정의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내 옥상에 야외 연습장을 마련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싱글 플레이어 회원들께는 무료 원포인트 레슨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회원들께서는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필드 모임을 실내 스크린골프 모임보다도 더 즐겨하시는데 것 같습니다.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뽐내고 푸른 필드에서 훌훌 털어버리며 웃는 한 이야기도 나누고, 얽치락뒤치락 숨겨왔던 각자의 핸드캡도 공개하는 즐거움은 덤이죠. 그렇게 운동을 끝내고 함께하는 저녁 뒤풀이 때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선보는 복지수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동호회 활동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본 사례가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지?

매년 복지수당을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식대와 간식비, 필드 모임 등에 활용하고 있



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이 있으면 더욱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확대해가고 싶은 활동 분야가 있는지?

기회가 된다면 선보공업과 선보하이텍 골프동호회 회원 합동대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실력도 검증할 겸 선보의 진정한 실력 톱(TOP)은 누구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의 통 큰(?)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웃음).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늘 안전하고 즐거운 모임이 되고, 창단 취지에 맞게끔 회원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동호회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어필 타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골프에 관심 있는 지역·사내 협력사 직원이면 누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영암 스크린골프 동호회 오세준 회장(선보하이텍 설계팀)

안전

“2024년 무사고 기원” 전 공장 안전기원제 실시



선보Family는 11월 21일 정오 전 공장 2024년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공장 정면을 향해 정성스럽게 상을 차린 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썼던 선보의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2024년 선보Family의 안전과 무사고를 기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 관계자 및 유관부서가 자체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 방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등에서 생기는 불티는 크기는 작지만 매우 고온인 데다 주변 인화성 물질에 흩날릴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VENT 결과

칸을 채워보자! 네모네모 로직 이벤트 당첨자 발표



추첨 진행 김영수 상무(플랜트설계3담당)

<SUNBO NEWS> 11월호 '칸을 채워보자! 네모네모 로직 이벤트'에 67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등 치킨 교환권 : 강영한 책임(패키지설계팀)
- 2등 햄버거 세트 교환권 : 서찬호 선임(설계6팀), 우지에 사원(전산팀)
-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 강지혜 사원(설계8팀), 김영관 과장(총무팀), 이윤민 책임(전계장기본상세설계팀), 정태욱 선임(설계2팀), 홍성권 책임(플랜트설계3팀)

EVENT

“들려줘, 선보 플레이 리스트”

· 곡명 _____

· 가수 _____

· 추천 사유 또는 노래에 얽인 사연

부서 : _____ 성명 : _____

<SUNBO NEWS>는 설레는 연말을 맞아 선보Family의 최애 음악을 추천 받는 “들려줘, 선보 플레이 리스트”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꼭 생각나거나, 동료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곡명과 가수, 추천 사유 또는 노래에 얽인 사연을 기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 제출일 : 12월 29일(금)까지
- ▶ 추첨 : 1월 3일(수) 무작위 추첨 후 선보Family SNS 계정을 통해 발표
- ▶ 상품 : 1등 치킨 교환권(1명)
2등 햄버거 세트 교환권(2명)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5명)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선보공업	장상권 선임팀장	조립2반	2003.12.26(20주년)
	최진희 팀장	계장반	2013.12.16(10주년)
선보하이텍	강선우 선임	설계팀	2018.12.03(5주년)
협력사	이용택 사원	현영산업(선보하이텍 영암공장)	2018.12.01(5주년)

SUNBO NEWS를 만드는 사람들

- 총괄 편집 김자영 선임
- 인사, 교육 김정성 팀장
- 총무, 행사, HSE 김영관 과장, 배상준 선임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제작 미디어룸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본사	윤동현(12.03)	김영수(12.14)
	김진환(12.04)	이동원(12.19)
	정영훈(12.06)	서진호(12.20)
	성창훈(12.10)	노영훈(12.21)
다대1공장	정차균(12.11)	신승훈(12.18)
	명철환(12.15)	김대관(12.24)
	조숙희(12.15)	강현욱(12.27)
다대2공장	전예지(12.05)	박성환(12.12)
	최종석(12.05)	
구평공장	홍 표(12.02)	조남석(12.15)
	구성민(12.05)	장호준(12.28)
	리스와니(12.05)	정용수(12.31)
	김정호(12.12)	
대불공장	나자르(12.19)	
영암공장	수산타(12.02)	아 이(12.18)
	구마라(12.07)	정바위(12.20)
	김정희(12.12)	신용섭(12.26)
	우메쉬(12.13)	
선보피스	김성화(12.15)	김용권(12.23)
	손우호(12.15)	고장석(12.25)
	나용태(12.17)	이명철(12.29)
부설연구소	권수인(12.05)	

입사기념일

본사	김소연(12.01)	배상욱(12.05)
	이명호(12.01)	장동휴(12.05)
	이진하(12.01)	정영훈(12.14)
	전성민(12.02)	이수진(12.21)
	문해기(12.03)	이화진(12.21)
다대1공장	최진희(12.16)	삼 술(12.26)
	노 안(12.19)	
다대2공장	김남석(12.05)	폰 투(12.16)
	이동주(12.09)	박재현(12.18)
	상 굴(12.16)	양 가(12.26)
	캠비발(12.16)	장상권(12.26)
	타오싱(12.16)	
구평공장	김명진(12.01)	하경원(12.03)
	나상우(12.01)	김충복(12.05)
	설태홍(12.01)	윤명호(12.16)
대불공장	최경식(12.12)	
영암공장	김동선(12.01)	권상웅(12.08)
	이용태(12.01)	아 이(12.14)
	강상우(12.03)	
부설연구소	권수인(12.01)	